

	<b>중국(상하이) 해외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전택규 소장
		일시	2025. 3.

## CEPA Insight

-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 국회의장과 면담
-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中 매출 하락, 중국 본토 브랜드 '승승장구'
- 시진핑 주석, 민영 기업 간담회서 "민영 경제 지원 정책 변함없다" 강조
- 중국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 '산업 관광'

### ■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 국회의장과 면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월 7일 개막하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중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국 인사들과 만났다. 우원식 의장은 개막식 오찬에 이어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을 만났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국회의장을 접견한 것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난 이후 처음이다.
- 우 의장은 이어 광복 80주년,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안을 요청했다. 또,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 의장은 양국 간 문화교류에 대해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

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시 주석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올해 한국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문화교류는 양국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xinhuanet.com/20250207/9e3d3f6d01b64c92a33d8e4c1f1a6243/c.html>

## ■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中 매출 하락, 중국 본토 브랜드 '승승장구'

- 매일경제신문(毎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7일 글로벌 최대 코스메틱 브랜드인 로레알의 2024년 실적이 공개되었다. 실적 보고 결과 지난 해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한 지역은 북아시아, 즉 중국이 메인인 시장이었다.
- 중국 시장 부진은 로레알뿐만은 아니다. 4일 저녁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스티로더 그룹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이 감소했다. 에스티로더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 감소 원인은 한국과 중국의 구매력 감소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에스티로더는 중국 고급 시장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인해 전체 실적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 한편 글로벌 브랜드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중국 본토 브랜드의 열풍이 꼽히고 있다. 현재 중국 브랜드 중 가장 인기 있는 부동의 1위는 프로야(PROYA, 珀莱雅)로 텐마오와 틱톡 플랫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슈(韩束)는 틱톡 2위, 커푸메이(可复美)는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

월 텐마오 스킨케어 부분 프로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0%, 커피 메이는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화장 부문에서는 차이탕(彩棠)이 900% 이상 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3549032787736965&wfr=spider&for=pc>

## ■ 주식, 민영 기업 간담회서 "민영 경제 지원 정책 변함없다" 강조

○ 신화통신(新华社)에 따르면 2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7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민영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민영 경제 발전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해 민영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화웨이(华为) 런정페이(任正非) CEO, BYD(比亚迪) 왕찬푸(王传福) 회장, 샤오미(小米) 레이쥔(雷军) 회장 등 6명 간담회에서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① 정책 지속성 재확인

- 민영 경제 지원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될 것
- 공유제·비공유제 경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원칙(两个毫不动摇)' 철저히 견지

### ② 성장 잠재력 강조

- 14억 인구의 초대형 시장·교육·기술 인프라로 민영 경제의 발전 기회 확대
- 현재 어려움은 산업 구조 조정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며 극복 가능

### ③ 정책 실행 방안

- 민영 기업 자금 조달·공정 경쟁·법적 권익 보호 강화
- 부당한 세금·검사 단속, 채권 미지급 문제 집중 해결
- 친밀하고 투명한 정부-기업 관계 구축

### ④ 기업가 역할 당부

- 혁신을 통한 고품질 성장 주력, 사회적 책임 실천 강조

- 노동자 복지·환경 보호·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촉구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24300074089164080&wfr=spider&for=pc>

## ■ 중국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 '산업 관광'

- 최근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 외에 공장 견학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제조 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산업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방학을 맞이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장을 방문하는 투어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산업 관광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 산업 관광이란 관광객이 특정 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 공장, 연구소,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산업의 역사, 제조 과정, 기술 발전 등을 체험하는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과정과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 BMW 자동차 공장 투어, 한국 포항제철소 견학, 네덜란드 치즈 공장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 등이 모두 산업 관광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칭다오 맥주 공장 견학과 Aspecta 중국 독점 공장 투어 프로그램이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산업 관광은 교육적인 요소와 여행의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학생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다.
- 2025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 샤오미 자동차 공장은 대중에게 '춘절 스페셜' 투어 패키지를 열었다. 온라인으로의 예약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모든 투어가 삽시간에 매진되었다. 같은 시기 신에너지 상제 슈퍼공장(北汽新能源享界超级工厂)도 18개의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녹색 공정 워크숍을 둘러보게 했다. 상제 공장은 베이징의 생태 보호 구역인 미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녹색 생산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 관련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03727449233165084&wfr=spider&for=pc>